

“전통농경문화 매력에 ‘흠뻑’ 빠졌어요”

전북지역 외국인 유학생 500명 김제지평선축제 참여 체험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북대학교를 비롯한 도내 5개 대학(전주대, 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유학생 5백명이 최근 열렸던 제19회 김제지평선축제에 참가해 전통농경문화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이들은 김제시에서 마련한 대형 떡으로 세계 국가를 만드는 ‘대형 떡 모자이크’, ‘글로벌 캐릭터 퍼포먼스’ 등 흥미로운 체험 및 다양한 볼거리에 참여해봄으로써 한국의 전통 풍습 및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유학생 참여 행사는 지난 6월 전북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과 김제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된 것.

이후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전북 유학생들에게 전통농경문화와 체험을 통한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전북대학교 총장은 “우리 대학뿐 아니라 도내 유학생들이 한국 전통농경문화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우리의 문화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이러한 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자주 접할 수 있게 해 지역과 우리나라의 전통문화가 유학생들을 통해 널리 퍼져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북대학교를 비롯한 도내 5개 대학 유학생 5백명이 최근 열렸던 제19회 김제지평선축제에 참가해 전통농경문화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한편 전북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은 글로벌 우수 인재를 유치·양성하고 지방 대학 간 연계협

력을 통해 동반 성장 및 지역사회 인재 양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자 2014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현재 4년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원광대병원 정신의학과, 대한정신약물학회 우수 논문상 수상

원광대병원(병원장 최두영)은 정신건강의학과 이상열, 장승호 교수 연구팀이 최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정신약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고 뒤늦게 알려졌다.



이상열 교수 장승호 교수

대한정신약물학회는 정신약물에 관한 기초 및 임상연구를 기반으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정신약물 전문학회이며 이상열, 장승호 교수 연구팀은 ‘나노 기술이 접목된 현장 진단 기기를 활용한 정신건강 평가법’ 연구로 금번 우수논문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나노 기술의 임상적 활용은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는 분야로 정신의학 분야에 접목은 이상열, 장승호 교수 연구팀에서 국내 최초로 시도되었다. 정신건강의학과 이상열 교수는 “해당 연구 기술은 향후 우울증상 및 자살에 대한 고위험군 선별법 및 정신건강의학과 임상 진료 현장에서의 응용을 통해 국민 정신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익산=정양원 기자

농협 무주군지부, 사랑의 쌀 무주군청에 전달

농협 무주군지부와 전북농협노동조합은 민족회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무주군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사랑의 쌀 10kg 25포를 무주군청에 전달했다.

또한 농협은 6년 연속 사회공헌 1위 기관으로 선정된바있으며, 이번 추석을 맞아 농협무주군지부는 사랑의 쌀 전달식과 더불어 무주군내 취약 농가에 우리 농축산물들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정환 지부장은 “추석을 앞두고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사시는 우리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행복한 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순창우체국 행복나눔 봉사단, 생필품 전달·화재경보기 설치

순창우체국 행복나눔 봉사단은 25일 추석명절을 맞아 우체국 돌보미 서비스를 받고 있는 홀로 어르신들에게 생필품과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를 전달하고, 순창119안전센터와 함께 화재경보기도 설치했다.



우체국 돌보미서비스(Post Care Service)는 홀로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집배원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안부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자녀 및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서면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현재 순창지역은 홀로어르신 6명을 대상으로 사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순창우체국 행복나눔 봉사단은 사회복지법인 주향의 집을 방문하여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장애인들과 담소와 우정을 나누며 자자한 행복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순창=이왕원 기자

장재우 명예교수, 전북대에 발전기금 1억원 쾌척

2013년 정년퇴임한 장재우 명예교수가 전북대학교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대학과 후학들을 위한 거액을 기탁해 훈훈함을 안겨주고 있다.



장 명예교수는 최근 이남호 총장을 찾아 1억원의 발전기금을 쾌척했다. 이남호 총장은 장 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가 기금을 기탁하게 된 것은 전북대 개교 70주년을 맞아 후학양성에 보탬이 되고 대학발전에 기여하고 싶어 했던 평소 신념을 실천한 것. 퇴임한 교수 개인이 대학과 후학들을 위해 거액을 선포 내용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장 교수는 이 기금이 개교 70주년을 맞은 대학의 경쟁력 향상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여지길 원했다.

장 교수는 “내 인생의 절반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전북대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개인적으로 대학과 후학들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며 “생각들을 실천에 옮길 수 있어 오히려 기쁘고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대학 발전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오셨는데 이렇게 퇴임 후에도 대학과 제자들을 아끼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개교 70주년을 맞은 우리대학이 성장을 넘어 성숙의 대학으로 나아가길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정해은 기자

본사 내방

▲ 김경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장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7년 11월 25일 (월요일)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전무 겸 편집국장 김관춘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388-6874	남원지사 632-3886	고창지사 563-69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842-2725
서산지사 010-2333-4791	순창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홍주지사 010-9845-9355	광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3886	정읍지사 538-3787
	군산지사 010-6789-01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9157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5-4182	무주지사 010-2300-423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웃어봐요! 히~즈~ 행복 쪽~~^^

추석과 함께하는 2017 임실N 치즈축제

10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추석	5	6	7
8	9	10	11	12	13	14

주요 프로그램

천만송이 국화전시, 전국어린이 요리경연대회, 제2회 전국어린이치즈창업동요대회, 전국 스타셰프 챌린지(최현석셰프), 국가대표 "왕" 치즈피자, 치즈나라 치즈범벅 모자이크, 치즈떡볶이 나눔행사, 치즈 및 낙농체험, 국내·외 치즈전시관, 임실N치즈피자 등 다양한 치즈음식

주최 임실군 주관 임실N치즈축제제전위원회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한국관광공사 전라북도 www.imsilfestival.com 063. 643. 3900

2017 축제 보조금지원